

「대구·경북 다시보기」 교육활동 우수 운영사례
박카스(친구들의 대구 명소 탐방) 동아리 운영

신○윤(○○중학교)

□ 운영 개요

○ 학교 현황 및 특성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인근의 거주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과정에서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도시 공동화 현상 때문에 학급 수 및 학생 수가 대폭 감소함.

○ 동아리 현황(지도교사 포함) 및 특성

소규모학교로서 교사·학생의 높은 친밀감 및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됨.

□ 운영 내용

○ 운영 목적

1. 지역 탐구와 이해: 자신의 고향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아리를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사, 현장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 전략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지역 자부심과 문화 홍보: 자신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발견하고 이를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협업과 소통 능력 강화: 학생들 간의 협업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운영 방향

- 창체 동아리 활동 시간 및 토요일을 이용하여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함.
- 1. 현장 탐방과 체험: 학생들은 지역의 주요 장소를 방문하고 체험하는 활동으로 역사적인 유적지, 문화 시설, 자연 경관 등을 방문하여 실제로 지역을 체험하고 탐구
- 2. 발표와 공유: 동아리 멤버들은 자신들이 수집하고 체험한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발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조사 결과와 인상적인 체험을 다른 동아리 멤버들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음.

○ 운영 주제

- 박카스 친구들의 대구 명소 탐방

○ 활동 내용

1.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방문(2023. 5. 26. 금)

대구 지역에 있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을 방문하여 울산 천정리 암각화와 1956년 대명캠퍼스 종탑위에 설치된 종을 보고 우리지역 교육의 역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

2. 대구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람 및 한방비누만들기체험(2023. 7. 14. 금)

한의약박물관을 방문하여 약령시의 역사와 약전골목의 유래와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한약재와 한의서 약작두 등 한방관련 용품을 보고 피부에 좋은 행

인 · 백지, 황백, 당귀, 백복령, 굴피 등의 한방재료를 이용한 비누 만들기 체험을 해봄.

3. 달성공원 및 경상감영공원 일원 탐방(2023. 8. 26. 토)

달성공원에서 결성된 광복회의 활약과 왕산 허위 • 석주 이상룡의 생애를 주요 활동을 톺아봄. 수창초등학교 뒤편에서 대구광문사가 전개했던 애국 활동과 수창학교가 건립되었던 상황을 그려봄. 독립운동가 서상한 • 윤우열 • 이종암 • 장진홍 • 정운해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항일정신을 일깨움.

달성공원 및 경상감영공원 일원 탐방의 내용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UCC를 만들어 공모전에 응모함.

4. 통갑놀이 UCC 제작(2023. 5. 16. ~ 6. 30.)

2학년 동아리 학생들 중심으로 자신들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직접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여 “주인공인 수아가 타임캡슐을 열며 친구들과 청라언덕, 경상감영공원, 계산성당 등을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서 역사적 사실을 알아가면서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친구 간의 우정과 대구의 역사를 다룬 내용”의 UCC를 제작함.

		
<p>행소박물관 방문 (2023. 5. 26.)</p>	<p>한방비누만들기체험 (2023. 7. 14. 금)</p>	<p>달성공원 일원 탐방 (2023. 8. 26. 토)</p>



통갓놀이 UCC 제작
(2023. 5. 16. ~ 6. 30.)

○ 운영 성과

- 2023. 대구·경북 다시보기 꿀-잼!』 UCC 공모전에 5팀이 참가하여 1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함.
- 대구에서 나고 자랐지만 학생들이 대구의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가고 또 그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과 더불어 학창 시절의 소소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음.

○ 탐구활동 학생 수기

지난 8월 26일 우리 동아리 사람들은 달성공원으로 가서 시민의 문을 지나 가이드분의 달성공원만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길에 대한 역사에 대해 들었으며 아름다운 풍경들을 지나 동아리 사람들과 약간의 언덕길을 올라가고 어떠한 거북이 동상 위에 세워진 수많은 한자들을 보았으며 가이드 분의 설명을 들으며 석주 이상룡과 왕산 허위 선생님의 기념비와 그 석상들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들었으며 다시 많은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많은 사진들과 역사적인 길들, 수많은 푸른 나무들을 친구들과 구경하며 길을 걷다가 저 멀리 있던 여러 마리의 낙타들을 보았으며, 다시 시민의 문 쪽으로 왔을 때 가이드분께서 문밖 도로에 있는 순종황제 동상을 가리키며 순종황제에 대한 역사를 얘기 해주셨고 황제인 순종이 1990년에 이곳에 다녀간 걸 기념하기 위해 도로 한복판에 세워졌다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은 철거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철거한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철거하기 전에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 그리고 동아리 사람들과 가이드분을 따라 순종황제 동상으로 가까이 갔고, 그 동상에 대한 여러 모습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동상을 지나 뒤에 있는 갈색의 황제들이 앉을법한 의자를 보았다, 나는 앉아보고 싶었지만 당시에 날씨가 너무 더워 의자가 뜨거울까 봐 앉지는 못했다. 그리고 바닥에 있던 꽃무늬를 보았고 가이드 분께서 여기에 '이 씨'가 있냐며 물으셨고 나는 손을 들었다 그리고 내 성인'오얏 이'의 뜻이 뭔지 아냐고 물으셨고 나는 알고는 있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이후 한참을 걸어가며 어떠한 곳으로 들어가서 벽과 천장에 달린 나무들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며 약간 안으로 들어가 '국채보상운동 발원지'가 적힌 동전들과 어떠한 석상과 작은 가옥 같은 걸 보았고 친구들과 앉아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했다.

길을 다시 가다 '소남 이일우'님의 행적들 중 하나이신 것 같은 '우현서루'라는 의숙을 운영하셨다는 글과 그 옆에는 '태극기의 의미'라는 걸 보았다 덕분에 잘 기억이 안나던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내고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친구들과 신호등을 건너 뒤 다시 출발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가이드분이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누군가 어떠한 건물을 가리켜 나도 그 건물을 봤다. 아까 내가 태극기의 의미라는 글을 보았던 건물이었다. 건물에는 자주색으로 '소남 이일우'라고 왼쪽에 적혀있었으며 건물은 사이 사이가 대각선으로 꺾여 있었고, 몇몇 개의 줄들은 검정색이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이일우님의 얼굴이 보였고, 저의 기준으로 왼쪽에는 큰 우현서루가 있었고, 이일우님의 오른쪽엔 작은 우현서루가 있는 것 같다. 사진은 좀 더 걸어가서 모습을 보았을 때이다. 큰 우현서루가 잘 안 보여 못 찍은 점이 아쉽다. 동아리 사람들의 반응도 엄청났다. 길을 조금 걸어가다가 작은 비석 같은 게 있어서 확인 해 봤더니 '대구부성 서소문터', '이곳은 대구부성의 서소문이 있었던 자리입니다.'가 적힌 비석을 보았다, 또 다시 길을 한참 걸어가다 가이드 분께서 '무영당'이라는 곳을 보여주셨다. 좀 깔끔한 가게들이나 집들에 비해 조금 허름한 무영당을 보니 엄청 오래된 곳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론 멋지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대구 근대역사관으로 걸어가갈 때 바닥을 보니 '3.8 만세운동 행진로.'라는 것이 보였고 제목 밑엔 '칭라언덕, 옛 동산과출소' 등등이 있었다. 그리고 박물관으로 들어섰을 땐 2층으로 올라가 사진엽서에 담긴 식민지 근대 풍경, 사진엽서에 담긴 근대 대구 풍경을 보았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대구 중앙로 일원을 사진으로 보았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한글조선전도'를 보았고 1915년 8월 25일 달성공원에서 광복회 결성에 대한 걸 보았고 가이드 분께서 달성공원에서 광복회가 결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광복회 조직'이라고 적힌 글과 사람들을 보았고 총사령인 '박상진'과 지휘장 '우재룡, 권영만.'님들 등등을 보았고 각도 지부 충청도 지부장 '김한중'님 전라도 지부장 '이병찬'님 평안동 지부장 '조현균'님 등등 그 외에 인물 해외에 계셨던 초대 만주 사령관 '이진룡'님과 2대 만주 사령관 '김좌진'님을 보았고, '의용실기'라는 것도 보았다. 저는 옆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경북 우편마차 사건이라는 것을 시간이 약간 촉박해 짧게나마 보게 되었다, 그래도 사진이라도 찍어 놓아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 '대구시가전도'라는 것을 보았고, '우재룡 의사 악력, 광복회 총사령 고현박상진 악력, 광복회 충청도 지부장 김한중 편지, 광복회원 고등법원 판결문'등을 보았다. 그 외에 광복회 조직분들의 업적들과 어떠한 사건들 등등을 사진으로 남겼으며, 마지막에는 '구 서문시장 장날 모습'을 보았다. 확실히 옛날

사진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무섭지만 더 멋졌다. 저렇게 북적북적한 곳에서 음식이나 옷 등등을 샀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대단해 보였다. 이제 마지막 구경을 마친 뒤 친구들과 사진 한 장을 찍은 후 밖으로 나오니 바닥엔 '영남제일관'이 적힌 바닥이 있었다. 그림이 정말 커서 '영남제일관이 잘 보였다. 역사 구경이 끝이 나고, 동아리 사람들은 각자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독립운동가분들의 얼굴이 있는 공책을 받았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도착했을 땐 동아리 책임자이신 선생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겠다고 동아리 사람들에게 각자 하나씩 고르라고 하셨다. 그래서 선생님께 한껏 감사한 마음을 품은 채 아이스크림을 받고 친구와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집으로 갔다. 이걸로 저의 덩고도 긴 역사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 운영 과정의 문제점 및 극복 방법

- 학생 자생 동아리로 활동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토요일 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을 함.
-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한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고 사진을 찍어서 간단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제작한 학생들에게 간단한 학용품을 지급함.

○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우리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알아보고 축제 때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함.